

많은 것과 적은 것

예수께서 헌금케 맞은 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케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부자들 여럿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톤 두 개, 곧 동전 한 닢 값 어치의 돈을 넣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이 헌금케에 넣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처지에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입니다」 (마가 12 : 41-44)

어느날 예수께서 부자들이 와서 헌금케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작은 동전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처지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입니다.」 (누가 21 : 1-4)

오늘 읽은 성서 속의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연보케 옆에 앉아 부자들이 연보케 속에 헌금하는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 오

더니 소중히 간직했던 동전을 연보케에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때 곧 옆에 있던 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것을 보아라.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가진 것 중의 얼마를 연보했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바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는 이 광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을 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언급을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많이 넣는 것과 적게 넣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좋은 일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만 이 과부가 던진 한 푼의 헌금이 부자들이 넣은 많은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상대적인 관계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이 짝막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빈곤이 인간 생활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 발전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해마다 춘궁기가 되면 절량 농가라 해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 꺾질을 꺾아 먹는 일마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 역시 일부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난에 쫓기어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제 발전의 덕택에 옛날과 같은 절량 농가는 없어졌고 도시에서도 이전보다는 윤택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난이 전혀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가난한 자, 눌린 자들과 고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비로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했고 지금도 역시 가난하지만 그 가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 끝에 나만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한 공동체가 함께 유대감을 갖고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난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내게 지식이 없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갖지 못했든지, 부모가 시원치 않았든지 하는 개인적인 원인에 가난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체념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남을 물리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 가난을 이겨 보려고 애를 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가진 자의 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실제 경험으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빈민 선교를 하는 가운데 소위 의식화라는 말을 내걸고 싸울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은 결코 가난한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 자신이 가난의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포함해서 전공동체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소위 남북 대결, 빈부의 격차, 제3 세계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교회가 선교 과제 중에서 빈민 선교를 아주 중요시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이나 가난의 문제를 다룰수록 우리는 어

면 벽에 부딪칩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에서는 물질을 초월해야 한다는 교훈이 전면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안락한 생활을 하려했던 것을 어리석다고 하신 비유를 보아도,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부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가난의 극복과 이러한 생활 태도, 즉 물질을 이겨나가는 금욕 생활은 전혀 상반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빈곤이나 가난이란 개념의 애매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더우기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가난을 권장하는 것이지 물질적 가난을 권하지는 않는다는 말로써 이 모든 애매성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가난과 물질의 가난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질 생활에서도 가난해지는가? 마음이 풍부하면 또 어떠한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신약과 구약에서 가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가난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저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와 같이 번성하라고 했고 포도원의 포도처럼

량 많은 열매를 맺어 물질적으로 풍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Jebyon」이라는 말은 남에게서 무엇을 구걸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 「dal」이란 말로 약한 사람과 자기의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사람 「Ani」는 허리를 굽으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자신을 버티어내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 그리고 「Anaw」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또 신약성서에서 Ptokos라는 말로 표현된 가난이란, 생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지같이 구걸하는 생활을 나타냅니다. 결국 구걸하는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통칭해서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분명히 가난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는 항거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난을 결코 운명적인 것으로 체념해서는 안되며 가난이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게 예언자들 말에도 나타납니다.

욥기24장 2절에서 12절까지에는, 「악한 자들은 지정표를 멋대로 옮기고 남의 양떼를 몰아다가 제 것인 양 길러도 좋고 고아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잡아도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길에서 밀쳐내니, 들나귀처럼 일거리를 찾아나가는 꼴을 보게. 행여 새끼들에게 줄 양식이라도 있을까 하여 광야에서 먹이를 찾아헤메는 저 모양을 보게. 아비 없는 자식을 젓가슴에서 빼어내고 빈민의 젓먹이를 저당잡아도 괜찮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가난은 결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빗값에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한 쟁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는 죄 때문이다. 힘이 없다고 머리를 땅에다가 짓밟는다. 가뜩이나 기를 못퍼는 사람을 너희는 길에서 밀쳐낸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가난은 하

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극복되어야 하고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보다 가난을 초래하게 되는 가난한 자들의 이기주의나 가진 자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것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열려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태도,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범주의 어느 한 쪽에 거의 예외 없이 속해 있습니다. 나는 가진 자도 아니고 갖지 못한 자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부유라는 말은 대단히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자는 가난한 나라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연수입 천불 이하면 빈민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중류에 속하는 수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나라에 살던지 가진 자라면 가지지 못한 자 때문에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게 된 것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갖지 못한 자라면 그것은 가진 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빼앗긴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상호관계가 가난과 부유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자들과 과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신 예수께서는 경제적인 가난과 부유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결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격차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 즉 영적인 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 문제를 물질적인 면에서 다루고 이것을 혁명적으로 개혁해 보려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똑같은 경제적인 부조리,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서 서로 융화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결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않고 무엇을 위해 많은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희소 가치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마 이 지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정신적인 희소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듯합니다. 정신적인 희소 가치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많은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아흔 아홉 마리의 공동체가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량으로 따져서 많고 적고를 가려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나 물질주의 일변도의 우리 사회 풍토 안에서 생활권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자기의 분신을 찾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돌봐 주려는 데 교회신교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과부가 던진 한 톨의 동전의 영적인 무게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음 열어 놓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탄일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삭막한 혁명의 전쟁터가 되고말 것

입니다.

과부의 헌금에 대해 그가 가진 것을 다 바쳤다는 뜻은 결코 그 여자가 가진 소유 전부를 다 바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정성,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개방적인 믿음까지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즉 전인간적인 헌신의 표시로써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며 쓰다남은 부스러기를 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일년 예산 중에 감사주일 헌금 예산을 책정해서 그 액수를 채우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빛교회 교인으로서 비록 부유한 층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지나간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고 우리의 고난, 괴로움, 쓰라린 경험, 슬퍼했던 일들을 통해서 어느 만큼 나 개인의 영적인 신앙 생활이 윤택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영적인 생활의 윤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풍족하게 사는 길은 교인이 많아지거나 헌금 액수가 많아지기 전에 앞서 먼저 우리 각자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며 존경하고 친절하게 지내는 영적인 부유한 생활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적은 것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그 적은 것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서로 알게 될 때 이 교회는 윤택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큰 것과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적은 것,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는 말과 같이 과부의 동전 한 푼에서 전우주의 뜻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동전 한 푼을 던지고 나서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 월급에 보태스라는 알팍한 심정이 아니라 가난과 부유의 차별을 넘어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헌금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생활단이 한빛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생명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실한 종의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쓰기를 그치지 말아야겠습니다.

(1976. 11. 21 한빛교회,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